

포교 현대화 선봉, 禪敎 겸비한 큰스승

관음 스님의 삶과 가르침

2월 28일 오후 7시. 달이 대해(大海)에 잠기듯 별이 하늘로 돌아가듯 조용히 원적에 든 관음당 지인(觀應堂 智眼) 스님은 현대 포교의 초석을 놓은 포교사이며, 선교(禪敎)를 겸비한 큰스승이었고, 유식학의 체계를 세운 유식학의 거봉이었다.

철저히 계를 지키는 수행자로서 대중과 함께 조석예불과 대중공양을 하며 평생동안 수행자의 전범(典範)을 보여 주었던 스님은 아픈 곳 하나 없이 재가 사그리지듯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

관음 스님은 1910년 경북 상주군 외서면에서 차남으로 출생, 스무 살이 되던 1929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해보 스님을 계사로, 탄음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36년 일불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38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에서 선법한 해의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 교토의 용곡대학에 들어가 현대불교학과 유식학을 공부했다.

다년간 교학을 공부하면서 유식학에 남다른 조예를 이룩한 스님은 1943년부터는 오대산 월정사 안거를 필두로 가야산 백련암, 고성 육천사 등지에서 참선 정진하여 혜등을 밝혔고, 1956년 황악산 직지사 조실로 추대됐다.

기억력 뛰어나고 금석문에 해박

1959년 정화 직후, 스님은 다시 조계사 초대 주지 겸 중앙포교사로 임명되면서 포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러나 강백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던 스님은 직지사 80명의 학인스님을 모두 데리고 조계사로 향하게 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다.

서울시내 한복판 조계사의 초대 주지가 되어 포교의 중심에 있었으나 조계사가 도심에 있는 관계로 학인들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스님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정화에 나섰고 1963년 세수 54세에 용주사 주지로 취임하게 됐다. 이때를 상좌스님들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평화적인 정화'였다고 회고한다.

이(理)와 사(事)를 둘로 보지 않는 자재함으로 포교와 교육의 중심축이 되었던 스님에 대해 전강제자 연관 스님(실상사 화엄학림)은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모든 것을 다 외우셨다"며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불교와 역사, 불교와 문화의 연관을 짚어주며 수행자의 역할을 강조하셨다"고 정열적이었던 강의 모습을 회고했다. 또한 "금석문에도 해박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식학에서도 관음 스님만한 분이 없다"



절친했던 도반들

관음 스님이 열반함에 따라 절친했던 도반 4분 중 석주 스님만 남았다. 원효종 종정 범종 스님(맨 오른쪽)이 지난해 3월에, 파계사 조실 고승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역시 지난해 9월 열반에 들었고 2월 28일 관음 스님이 열반함에 따라 한 회소에서 수행했던 도반 4분 중 유일하게 석주 스님(왼쪽에서 세번째)만 남게됐다. 사진은 고승 스님의 96회 생신을 맞은 2001년 11월 24일 팔공산 파계사 내원에서 자리를 함께 한 모습. 절친했던 4분 도반들의 모습이 새삼 정겹다. (사진 제공: 허주 스님)

유식학 체계 세운 대봉... 무문관 6년 결사 '귀감'

전강받은 제자 10여명, 現 종단교육 중추 역할

며 대강백의 원적을 아쉬워했다.

또 다른 전강제자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은 관음 스님을 학문적 편견이 없었던 분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개신교의 하나님도 모든 것이 하나다"라며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고 설하셨다고 전했다. 스님과 전부터 이 독특한 분 중에는 기독교 장로도 있고, 수녀도 있었을 정도로 포용력이 대단하셨다.

역사·문화 등 다방면에 지식 풍부

관음 스님이 북한산 천축사에서 6년간이나 무문관 결사를 한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서 희유한 사건이다. 스님은 65년부터 시작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육년결사를 71년 회향했다. 일제 문밖 출입 없이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독방에서 6년을 지낸 스님은 "나는 공부한 것이 없다"는 한마디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따른다고 시작한 6년결사는 스님을 포함 5명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6년을 회향한 스님은 관음 스님을 포함 2명 뿐이었다.

1976년 세수 66세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평생 도반인 고승, 석주 스님과 함께 한 노년 안거 또한 관음 스님의 수행의 길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일화다.

노구를 이끌고 손수 땀흘리며 지낸 이 시절은 수행자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관음 스님을 '시계'라고 표현한 전강제자 범하 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의 말은 관음 스님이 얼마나 철저히 계를 지켰으며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다 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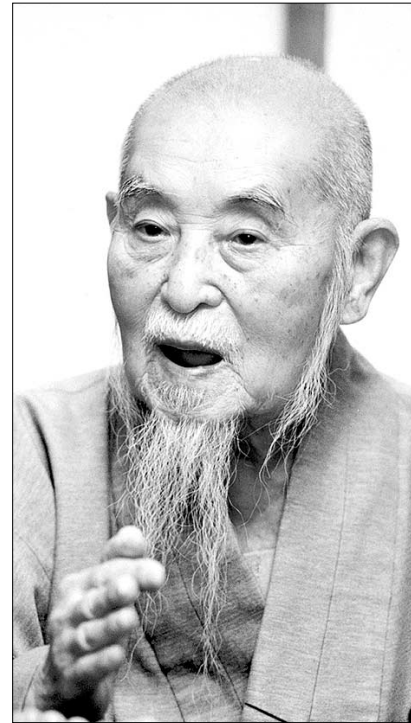
범하 스님은 "연세가 들수록 등산을 많이 하고 스스로 몸을 보살피려 하셨던 분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선교를 겸한 대강백으로서 또 포교사로서 활동하던 스님은 1984년 원산, 범하, 자일 등 학림을 마친 10명의 제자에게 전강함으로써 이들 전강제자들이 오늘날 종단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스님의 속가 딸이 비구니계의 대강백 명성 스님(경도 운문사 회주,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을 맡아 비구니계를 이끌고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명성 스님은 불교계의 쟁쟁한 대강백 경봉·운허·만우·탄허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다. 성능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으며, 관음 스님처럼 유식을 전공,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식학의 대가이다.

관음 스님은 1984년 이후에는 직지사 산내 암자 중임을 복원하고 즐근 이곳에서 수행하고, 후학들을 제정했다.

엄격함보다는 시골할아버지 같이 자상했던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어를



선교를 겸비한 큰스님 관음당 지인 스님.

했으며, 항상 겸손했다. 스님의 웃는 모습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다 쉬어졌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한다. 12번째 스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운전기사 해운 거사는 "인사를 하면 항상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주셨습니다. 또 차를 타면 항상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지요. 아무리 멀리가더라도 자제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웃고 누구에게나 자상

중암에서 7번째 공양주를 해온 송덕명화(58, 이무상실(66) 보살도 스님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짜지 않고 간간하게 드셨지요. 관음 스님은 오신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버섯음식을 즐겼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잘해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스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으며 스님을 기렸다.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일화도 있다. 어느 날 잡초를 뽑고 있던 지자가 스님께 여쭈었다.

"노스님, 잡초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그런데 왜 뽑으라 하시니까?" "잡초를 뽑는다고 불성이 없어지느냐? 생명은 우주와 하나인 법이여..."

관음 스님은 그렇게 우주와 하나가 됐다. 스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생명은 우주와 하나'라는 가르침은 산하대지의 본성을 일깨우며 황악산 연초록 세운으로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7> 보각 스님

'조국사랑' 1백년 한길로

"항상 즐거워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팔당암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남시 검단산 통일정사 회주 보각(寶覺) 스님이 지난해 1월 백수(白壽)를 맞아 신도들에게 내린 법어다. 세월의 무게로 육체의 기력은 많이 쇠했지만 스님의 법문에는 아직도 수행자의 기쁨이 성성하다.

190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58년, 늦은 나이에 출가한 보각스님. 반평생을 수행자로 살았지만 스님은 아직도 독립운동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1904년 이화학당에 입학해 유관순 열사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며 3·1 만세운동을 함께 펼쳤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지만 한 학년 아래였던 관순이와 함께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만들었지



스님을 지켜준 것은 불심이였다.

그랬다 스님은 1955년부터 59년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신도회를 창건하고 30여년을 토굴생활을 했다는 스님의 말 속에서 오랜 수행의 이력이 느껴진다.

졸처럼 수행이력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나, 1970년 통일정사를 창건하고 30여년을 토굴생활을 했다는 스님의 말 속에서 오랜 수행의 이력이 느껴진다.

스님이 평소 강조하는 것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욕심내지 말고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수행하세요. 또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100살이 넘는 스님에게 아직까지 변함없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찰 이름을 통일정사라고 지은 것과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단군 성전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조석 예불 때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열사와 김구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유공자, 6·25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숨진 영기를 추모하는 일 모두에서 스님이 얼마나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스님은 오늘도 죽기 전에 조국이 통일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통일정사를 지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 통일정사 짓고 평화 염원

요. 그때는 태극모양을 정확히 몰라 밥공기로 동그라미를 그렸고 태극괘는 대충 흉내만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피곤하지도 않았고 신이 낫던 것 같아요."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친 것과 달리 자신은 어디다든 자유로 동네 순경에서 따귀 한대 맞는 것으로 화를 면한 보각 스님. 이후 스님은 1924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했지만 일제하에서는 살수 없으며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기독교 근대 교육을 받았던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면서 부터다. 독실한 불자인 남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 심오함에 놀라 신심을 키우게 됐다. 그러나 스님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로써 염원했던 조국이 통일되었지만 돌로 갈라진 현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세 아들 등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었다. 그때마다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觀應堂 智眼大宗師께서

지난 2월 28일(음 2월 9일) 오후 7시 직지사 중암에서 涅槃하시어,

3월 3일(음 2월 13일) 직지사 만덕전 및 연화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영결식 및 다비식이 여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觀應堂 智眼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에 관심을 사부대중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앞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8년 3월 4일

觀應堂 智眼大宗師 49齋 안내

觀應堂 智眼大宗師 49齋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일시	장소 및 문의처
초재	3월 5일	직지사 중암 (054-436-6612) (극락사 지옥 031-766-3549)
2재	3월 12일	안양 보장사 (031-471-3322)
3재	3월 19일	청도 운문사 (054-371-2824)
4재	3월 26일	직지사 중암 (054-436-6612) (홍제사 도형 02-736-0367)
5재	4월 2일	서울 총정사 (02-765-1543)
6재	4월 9일	통도사 백련암 (055-382-4859)
49재	4월 16일	직지사 (054-436-6174)

■문의: 직지사 중무소 ☎(054)436-6174, 직지사 중암 ☎(054)436-6612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觀應堂 智眼大宗師 門徒 一同